

올림픽지원특위 도 출신·연고 국회의원 대거 포진

권성동 김기선 염동열 이상호 윤호중 김현 선임 맹활약 기대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대회지원 특별위원회가 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 출신·연고 국회의원이 대거 포진해 어느 때보다 탄탄한 진용을 갖췄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권성동(강릉)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원주갑), 염동열(대백-영월-평창-정선) 의원 등 도 출신 의원 3명이 특위 위원에 선임됐다.

또한 민주통합당에서는 철원 출신

이상호 의원을 비롯해 춘천고 출신 윤호중 의원, 강릉 출신 김현 의원 등 당 주요 직책에 있는 도 연고 3인방이 포진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선임됐고, 여야 간사는 새누리당 이한성·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 밖에 새누리당 송광호, 황진하, 박창식, 이우현, 이에리사 의원, 민주통합당 김동철, 문병호, 최동의 의원,

무소속 문대성 의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각 행사별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민망기기자 wanki@

동반성장 우수·녹색기업 조달시장 참여 쉬워진다

동반성장 우수업체·녹색기업 등의 정부발주공사 참여가 쉬워진다. 반면에 불공정 하도급 등 공생발전에 역행하는 업체는 정부조달 시장에서 배제된다. 7일 조달청에 따르면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 우수업체 및 녹색·신기술 보유업체는 우대하고 불공정 하도급 거래로 과징금 부과를 받은 업체는 불이익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PQ)'을 개정,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PQ개정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가 제재기간 중에도 정부공사를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상반기 건설 수주액 54조 8154억

지난해보다 9.7% 증가... 민간부문 경기 상승 견인

대한건설협회는 올 상반기 국내건설공사 수주액이 54조8천154억원으로 작년 동기간보다 9.7%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민간부문 수주가 약 39조5천800억원으로 11.6% 늘었고, 공공부문은 5.2% 증가한 약 15조2천400억원으로 민간부문이 상반기 건설경기를 이끌었다.

민간은 대형 민간발전시설과 천마산터널사업 등 민자도로 발주가 이어져 토목 수주액이 작년보다 36.4% 늘었다.

건축 부문에서도 세종시와 혁신도시 등 공공기관 이전지역을 중심으로 주거용 실적이 증가, 3.8% 증가세를 보였다.

공공부문 토목은 5.2% 증가했다. 삼척 그린파워 등 대형 발전·플랜트 설치 공사가 이어졌고 철도, 항만 등이 호조를 보였다.

도내의 경우 올 상반기까지 도내 지역 공공공사 발주액은 5882억원(10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88억원(1128건)에 비해 3.4% 소폭 증

가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29.6%(2482억원) 정도 감소했

으며 지난 5년간 낙찰금액이 가장 많았던 2009년(9041억원)과 비교하면 34.9%(3159억원)나 줄어 수년째 공공공사 발주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박현철